

'10년 포교'와 맞바꾼 '아수라장'

23일 조계사 이·모·저·모 화염병-물대포-최루액 등 난무 신도들 울분 못참고 끝내 통곡

경찰이 조계사에 첫 투입된 23일 새벽 4시25분부터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오전 10시 특수기동대에 의해 검거되기까지 5시간 간여 동안 조계사 경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유리병과 돌, 화염병이 난무하는 가운데 폭력적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대치했다. 결국 청사 내 스님들의 전원 연행으로 강제퇴거 집행은 막을 내렸다.

이날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국민복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 망정 이리서는 안된다"며 "스님들끼리 싸우는데 돈 엄청난 비용을 노숙자를 위해 사용했다면 불교위상이 한층 더 강화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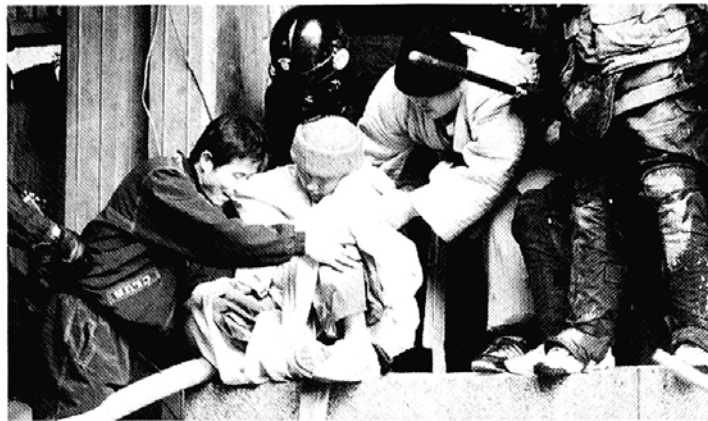
○...새벽 4시25분경 병력 5천여명을 동원해 조계사 출입을 통제하며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10시쯤 조계종총무원 청사 서쪽을 고가사다리차 2대를 동원해 특공대 80여명을 육상으로 투입하면서 본격화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청사 1층 청문을 포크레인으로 들어내고 1백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목적으로 10분도 안돼 승려들을 연행하며 작전을 종료.

○...오전 6시쯤부터 경찰이 청사 앞에

쌓인 폐건축자재를 포크레인으로 치우며 접근해오자 정화개혁회의측 한 승려는 "가까이 오면 할복하겠다"며 무비한 칼로 배를 그어 경찰을 한때 긴장시켰다. 이 스님은 경찰에 의해 검거돼 가면서 "이렇게 물러날 수 없다"고 소리치며 거칠게 몸부림쳤다. 경찰이 접근해 올때마다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은 유리병과 기와조각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취재진에게도 병을 던져 항의를 받기도 했다.

○...8시30분 강석영 서울지법 집판관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루라"며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1차 경고 방송. 이에 대해 정화개혁회의는 선무방송을 통해 "조계종의 정통성은 중정스님과 원로회의에 있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맞섰다.

○...정화개혁회의 스님들은 9시20분경 1층에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에 불을 붙였으며, 치수가 시작된 검은 연기는 금세 청사 전체를 덮으며 급박한 분위기. 유리창을 통해 불길의 첫눈은 모습도 보였으며, 바로 투입된 소방관에 의해 불길은 5분여



◇경찰투입 30분만에 총무원청사에서 저항하던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모두 연행됐다.

만에 꺼졌다. 한 신도는 "한국불교가 타고 있다"는 말로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퇴거집행이 끝난 청사 내부는 여기저기 병이 나뒹굴고 돌과 기와조각, 옷 등이 널려져 있었다. 1층에서 5층까지 벽면은 시커멓게 그늘려 있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아침부터 오전내내 조계사 앞 우정국로의 교통이 통제돼 혼잡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출근자 대부분은 불교가 이리서는 안된다며 우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스님들이 연행되

사회복지 정보센터 24일 개원

조계종-종단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4일 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불교 사회복지정보 지원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이번 정보지원센터 개원은 조계종과 종단협이 지난달 13일 정보복지부가 지원하는 '실질적 정보센터' 설립 지원단체로 선정돼 각각 9천만원씩을 지원받아 이뤄진 것이다.

정보지원센터는 앞으로 99년 봉축기간까지 '사이버 정보지원센터'를 개설, 기념사업으로 불교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D/B 개발사업 △불교사회복지 현황조사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후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각 종단의 사회복지 정보를 통합, 각 종단 및 사회 복지활동의 체계화 및 정보·프로그램 공유, 업무협조, 사업연계, 연합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종단협은 이를 계기로 각 종단의 복지활동 필요성을 계몽할 계획이며 불교 복지 지원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뉴스 & 뉴스

구미 금오복지관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8일 경북 구미시로부터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이어따라 복지재단은 내년초부터 직지사운영위원회의 지원에 산하 도리사가 위탁운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지하층, 지상3층의 연건평 4백69평 규모의 금오종합복지관은 LG그룹에서 건물을 지어 시정에 기부한 것이다.

김재경 기자

관문사 청년회 창립

천태종 관문사는 20일 7층 대불보전에서 청년회 창립식을 가졌다.

문덕 총무원장을 비롯 도재 재무부장, 훈관 교무부장과 신도회 권무원 회장, 중앙청년회 이문재 회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청년회 회기로 회장 등 "기도하는 청년회, 신바람나는 청년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28일 '노숙자 승년의 밤'

승가원(이사장 지하)과 서울 강북구청(구청장 장정식)은 28일 강북구청 강당에서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승가원 산하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 강북종합사회복지관, 번2·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 회의실 불교노숙자와 부랑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승년의 밤은 소책자마을 원장 보각스님이 '희망의 밤'을 여는 등 화합의 시간을 꾸며졌다.

김재경 기자

승가원 그룹홈 '겨울캠프'

승가원 산하 4개 그룹홈(강북, 성북 1·2, 종로그룹홈)은 21·22일 현대성우로트에서 그룹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겨울캠프'를 실시했다.

시각장애인 4명, 정신지체장애인 6명, 지체장애인 1명 등 총 11명의 참가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맞잡고 스노우 및 눈썰매 타기, 운전욕, 삼정호수 관광 등을 즐기며 자활의욕을 드높였다.

김재경 기자

경인지역스님들 새싹포교 나섰다

어린이법회 활성화준비위 30여명 동참

서울·경기지역 어린이법회 활성화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법전스님·지장사 주지)가 23일 발표했다.

새싹불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화두로 발표한 준비위원회에는 지원스님(삼보사 주지), 성광스님(화계사 부주지), 황학현(불교연구원 원장), 장병문(진선여교 교사)씨 등을 비롯해 서울·경기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불교연구원이 서울·경기지역 어린이법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여개 사찰에서 평균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법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10년간 서울·경기지역 150여개 사찰에서 평균 1백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법회가 운영됐던 것과 비교해 67% 감소한 수치.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첫째 어린이법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교어린이지도자 양성 과정(교사대학) △수요강좌

△지도자연수 등을 상시 운영하고, 어린이법사위원회(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제1회 지도자 양성과정은 99년 3월5일~5월28일 종로교육관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실시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국제종교연합 창설 추진

진월스님 한국지부 개설 준비 한창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종교간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국제종교연합(United Religion, 이하 종교연합) 창설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내 연락사무소 삼소방(간사 진월스님)이 개원했다.

종교연합은 199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범종교합동집회에 참석한 달라이 라마(티벳 승왕), 스승주교(성공회·미국) 등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정치·군사력으로는 더이상 권위를 지킬 수 없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안한 것.

오종욱 기자

빠르면 2001년 민영교도소 문연다

빠르면 2001년 민영교도소가 문을 열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교도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키로 했다"며 "내년중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교도소는 내년부 터 2~3년의 공정을 거쳐 3~4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도필선 기자

춘천에 천태종 삼운사 기공

2001년 가을 완공

메머드급 사찰이 강원도 춘천시에 건립된다. 천태종은 20일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590-18에 삼운사(주지 월도) 기공식을 가졌다.

천태종은 부산 삼광사, 서울 관문사 등에 이어 삼운사를 대지 1천6백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천2백평 규모의 춘천지역 최대 사찰로 건립한다. 삼운사는 지하 1층에 어린이수영장을 짓고 현재 대입을 보고 있는 관음전을 하는 대신 사찰시민공원을 조성, 열린불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주지 월도스님은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을 열고 복을 일구길 수 있는 개방된 승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단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배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배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활동판 팔배만다라와 팔배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활동판 팔배만다라와 팔배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상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활동판 팔배만다라와 팔배불탑다라니 처방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으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적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형) 테크라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소화시킵니다.

항비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권형(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족화합물의 성분이 신권형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항비는 자연향인 페르티드과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형(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스타그린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스타그린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침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특효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증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끈적 끈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탈비덕이 걸려서거나 토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빈번히 심한 편이다
- 18 담노노 감성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체형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항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년 악운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항비팩을 배꼽(신권형)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까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이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항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